

## 기독교대학의 여대생들이 물어야 할 질문: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성"에 관하여

양혜영 (백석대)

### I. 문제의식

“교수님, 제가 요즈음 성경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 답답해져요. 모이면 주로 성형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위의 글은 교회에서는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주중에도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기독교인 여대생과 우연히 나는 대화 내용의 한 부분이다. 사회의 가치관이 외모의 중요성을 점점 더 부각하고 있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교육, 취업, 배우자 선택 등의 실제 상황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김지양 · 임은혁 · 전호경, 2013). 이처럼 외모가 중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외모에 따른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으로 저하된 자기 존중감을 외모관리행동을 증가함으로써 높이하고자 한다.”(김지양 · 임은혁 · 전호경, 2013: 165). 또한 이은애의 연구(2011)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아름다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서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외적인 모습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외모를 근거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업, 결혼, 승진 등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외모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믿어지며 사람들은 성형, 다이어트, 운동, 미용, 명품소비 등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시되고 추구되는 경향은 그 기준에 의해 개인의 우열을 가르고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여 결국 불평등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얼짱, 몸짱, S-라인, V-라인, 초콜릿 복근, 꿀벅지 등의 용어를 만들어내어 우리 귀에 익숙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미의 기준들을 세워나가게 하고 모방하게 한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라는 게 하얀 피부, 작은 얼굴, 큰 키, 큰 눈, 오뎅 한 코, 마른 몸매, 긴 다리 등 서구적인 것이다”(이은애, 2011: 5).

위의 글에서처럼, 서구적인 미의 기준인 “하얀 피부, 작은 얼굴, 큰 키, 큰 눈, 오뎅 한 코, 마른 몸매, 긴 다리”를 갖기 위해서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성형을 한다. 2012년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유엔 산하 국제미용 성형수술협회(ISAPS)가 집계한 ‘국가별 인구당 성형수술 건수’에서 단위 인구 당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도했다.<sup>1)</sup> 여대생들 사이에서도 취업성형과 면접성형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졌다.<sup>2)</sup>

하나님의 특성이자 여성의 특성의 하나인 "아름다움"은 본질적인 특성이면서도 가장 물 이해된 특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름다움에 대한 세상풍조의 기준에 익숙해져서 보다 더 쉽게, 일단은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여대생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논고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여대생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성경속의 인물들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여대생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성경 속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고찰의 결과들이 기독교 대학교육 기관에서 여대생 지도와 상담, 교육 등에 활용될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아름다움의 정의와 아름다움의 추구에 대하여

본고는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란 탐구 현상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 향후의 연구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더불어 연구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살펴보는 연구이다(실행연구방법, 이용숙외, 2005). 기독교인 여대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55명의 기독교 여대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1.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지요?
3.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인가요?
4.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까요?
5.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중 더 알고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사대상의 기독교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정의를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봤을 때 감탄이 나오고 계속 바라볼수록 새로운 점들이 보이면서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 꾸미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
-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즉, 내면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좋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

1) 1000명당 16명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보톡스, 박피 등과 같은 비절제(Non-invasive) 수술과 쌍꺼풀, 코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외과 성형수술(invasive)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출처:이코노미스트, 2012. 4.

2) 대기업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온라인 취업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취업성공을 위한 매직 쌍꺼풀 48만원이라는 홍보글에 조회수는 500건을 넘었고, 취업을 위한 성형상담은 비공개 댓글로 진행되었다. 졸업 예정자인 A씨(26)는 "외모가 학벌이나 토익점수 못지않게 새로운 경쟁요소로 작용하면서 '취업성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남들 하는 만큼 뿌띠성형(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해 성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술) 정도는 해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노경은, 김남이, 2013.10.17.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좋다.

- 누가 봐도 “우와” 하고, 감탄이 나올 만한 모습
-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인간미
-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 마음이 이끌리는 것
-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것. 내면의 무언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따스함, 선함, 지혜롭고 성실한 어떤 총체적인 것

조사대상자들이 답변한 것처럼, 아름다움은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대상의 특성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調和, harmony)의 상태”(국어사전, 2003) 이지만, 그 개념은 학자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서정범(2001)에 하면 우리말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알다(知)라는 동사 어간에 ‘-음’ 접미사가 붙은 알음(知)에 ‘-답다’ 접미사가 붙었다는 것이다. 즉 아는(知)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견해는, ‘아름(抱)’의 명사에 ‘답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아름’이란 두 팔을 벌려 껴안을 때의 둘레의 길이와 두 팔로 껴안을 수 있는 양(量)이다. 또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한편,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거나 듣기에 즐겁고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할 만하다. ‘예쁘고 곱다. 또는 행동, 마음씨가 훌륭하고 가늠하다’ 이다(민중국어사전, 2001).

미(美)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의 근원과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적 정의의 ‘미(美)란 지각, 감각, 정감을 자극하여 내적 쾌감을 주는 대상’이다(큰국어사전, 2001). 한편, 김용택(2013)에 의하면, 미(美)의 어의 상의 기원에서 보면 美자의 형태에서 위의 획은 羊이요, 아래는 大이니 ‘美’는 ‘양(羊)’자 밑에 큰 ‘대(大)’자가 붙은 글자로 원래는 ‘큰 양’을 뜻했으나, 양의 모양과 성질에서 ‘아름답다’의 뜻이 되었다고 한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양을 생활 수단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식으로 사용하였기에 살찌고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좋아 하였고 더욱 아름답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美)의 의미는 양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의 흐뭇한 마음이라고 해석한다.

누구나 아름다움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한다. 흠은, 이미 200여년 전에,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다. 아래의 글을 통하여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도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 오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부터, 일상의 사물들에서 혹은 예술 작품에서 사람의 행동에서,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에 노래하는 새소리에서 수면에 비친 그림자에서, 이유 없이 베푼 친절함의 행동, 모차르트 콘체르토 488번 아다지오에서, 예전에 누군가를 만났던 기억에서, 반짝이는 가을 낙엽에서, 커피메이커의 디자인에서, 수학공식이 풍기는 우아함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에서, 대도시에 늘어선 고층 빌딩에서, 막 탄 싱싱한 과일에서, 매력적인 춤에서,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서, 색이 바래서 반쯤 뜯어진 광고 간판에서, 풍덩이의 모습에서, 도시의 청명한 밤거리를 걸으면서, 차려입은 옷차림에서, 여름날 아침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에서, 완벽하게 계산되어진 멋진 시어들에서, 꽃향기에서, 시골의 달빛에서, 어린아이의 눈빛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피에로 페루치, 2009: 11-12)

한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성경에서의 말씀은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창조해주셨는데, 그 얼굴을 내 뜻대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는 이미 한 곳을 성형 했습니다.
-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은 좋다. 과한 것은 욕심이다. 나는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 눈썹문신을 하고 싶습니다.
- 성형수술은 아니어도 간단한 시술은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 과도한 중독수준의 성형수술이 아니라면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자신감을 갖는 정도의 성형수술이라면 반대하지 않아요.
-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시대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자존감, 자신감 등이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성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코가 낮아서 코를 높게 세우고 싶어서 고민해본적은 있습니다.
- 성형 고려한 적은 많지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이지만 현실에선 저조차 외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작품이기 때문에 성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로는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은 하고 있고, 하고나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어요.

외모가 사회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이제 아름다운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오늘날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형성”(김지양 · 임은혁 · 전호경, 2013: 64)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응답자들의 답변에서도 읽혀진다. 성형을 통해서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외모관리 행동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들 가운데, 한 명은 “요즘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성형이 아니라, 내적인 성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을 살면서 외적인 자신감 보다 내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한 학생도 있다.

기독교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교회 청년부 언니인데, 그 언니는 항상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다니는데도 기뻐 보이고 밝아보여서
-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작은엄마’이다. 조리있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을 하시기에.
- 교회친구, 봤을 때도 예뻐서 눈이 가지만 볼수록 매력 때문에 자주 보게 된다.
-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나는 오늘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당당한 모습. 자신을 확신하는 모습.
-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그 이유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여유가 느껴짐.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풍기고 내면의 깊이가 느껴져서 아름답다고 느껴짐.
- 이영애. 어제 본 다큐멘터리의 작용이 크다. 아름다움의 미모와 그에 따른 행실까지 흠 잡을 것이 없다.

- 이 0선. 우리 엄마다. 엄마의 투박한 손, 발이 너무 좋다.
- 우리 어머님, 나를 예쁘게 낳아 주시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으신 우리 엄마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 선배 언니, 큰 키와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후배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속한 찬양단 리더님인데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시며 예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 교회언니, 호감형 외모이기도 하지만 선한 본성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다. 믿음생활을 성실하게 하기 때문인지 얼굴이 환한 그런 사람.

위의 답변들을 분석해보면, 외면의 모습뿐 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구약성서에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서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히브리어 ‘아페’ (hpy)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인간의 아름다운 외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간의 외모에 대한 묘사 중 다른 하나는 ‘토브’(bwf)인데 이것은 원래 ‘좋은, 선한’(good)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지만 외모와 관련해서는 ‘아름다운’(beautiful), ‘멋진’(handsome)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첫째, 위험을 가져오는 성적 매력으로서의 ‘아름다움’ 과 둘째로는 영웅, 권력의 조건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 이 있다. 구약성서에서도 육체의 아름다움은 한 개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또한 아름다운 외모는 사건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사건을 전개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의 모습에 대한 찬양이다. 그것은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유일하거나 절대적이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호의를 입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외모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외모의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지혜와 용기와 믿음 등과 함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주체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도구이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애, 2011: 20-22)

즉, 성경에서는 내적인 아름다움(지혜, 용기, 믿음 등)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룯기의 룯은 아름답고도 강했다. 연약해보였지만, 중심에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은 에스더는 담대하고 영민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다.

### Ⅲ.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과 성경 속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에 대하여

#### 1.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조사대상의 기독교인 여대생들 가운데 다수의 여대생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요즘 외모지상주의 세태 속에서 외모강박증 등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자신이 모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외적으로 가꾸는 것도 (화장, 옷 잘 입기...)필요하고, 매너(예의범절),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 말하는 것,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름다워지기 위해 걸치장만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다. 인격의 내면과 같은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것, 외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굉장히 중요시 하며 살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올바른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삶의 방향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여성으로써만 지닌 특징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 현재 연예인과 같은 아름다움 말고 자기 자신의 발견해내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불필요한 성형에 대한 교육,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 진짜아름다움이란? 요즘 아름다움(미)에 대해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아름다움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나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외적 아름다움 뿐 만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외적 아름다움 중심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로써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세상의 시선과 압박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 아름다움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성형국가 1위라는 사실은 한국의 여성들이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몹시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 여대생들의 답변을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고 더불어,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경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중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성경 속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쯤 들어보고 싶다.
-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나올 정도라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부럽고 알고 싶다.
-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여성은, 무언가를 품고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다.
-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성경속의 여성

- 사라, 라헬과 같이 많은 남자들이 반한 곱이 아름다운 여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의 여인 한나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여인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함.
-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다.
- 성경 속 인물등과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아름다움을 비교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고 싶다.
- 에스더가 성경에서 얼굴이 예쁘다고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한다.
- 성경에 나오는 미는 외향적인 면도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을 부각시킨다. 현대에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느꼈으면 좋겠다.
-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아름다움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성경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습과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아름답다는 것이 외모가 아름다운건지, 내면이 아름다운건지, 잘 모르겠다. 둘 다라면 고대시대니까 그 시대의 풍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 성경 속의 여인들의 외적인 면보다 여인들의 태도, 자세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꼈다. 성경 속의 여인들 중 대표적인 예 '한나'는 현숙한 여인이요, 진실한 여인이었다. 성경속의 여인의 아름다움은 진실한, 현숙함, 지혜로움이 아닐까 그것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에스더는 마음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했다.
-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여성일 것 같다.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베드로전서3:3-4)

## 2. 성경 속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성경속의 아름다운 여성을 살펴보고자, 평안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엘리사벳,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한나, 하나님의 지혜를 실행하는 아름다운 아비가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마리아(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1) 평안의 말을 하는 아름다움: 엘리사벳 (누가복음 1:39-56)

“알베르트 넬리(1475-1515)의 방문”이라는 미술작품은 누가복음 1장 39절-56절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 것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모습을 그렸다. 두 여인이 마주 손을 잡은 모습과 눈과 눈의 마주침은 무언가 설명으로는 불가한 아름다움의 강한 감정을 안겨 주었다. 후에 우연히 읽게 된 헨리 나우웬의 글을 통하여 이 그림이 주었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충격적 소식을 듣는다. 이 소식은 이해를 초월할 뿐 아니라 마리아의 순박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임을 느낀다. 마리아의 친척이든 친구든 남편이 될 요셉이든 어찌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 가장 내밀한 소식을 그녀는 누구한테 털어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 못할 사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가깝고 따뜻한 친구를 마리아에게 주신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했고 믿음의 반응으로 부름 받았다. 그녀라면 아무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른'(눅 1:39)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단순하고 신비로운 만남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불신과 의심과 독단과 냉소의 세상 한복판에서 두 여자가 서로 만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서로 확증해 준다.... 3개월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서로 격려한다...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기아들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 주었다 (헨리나우웬, 2002: 38).

마리아와 겪은 일과 비교할 수는 도저히 없겠지만, 많은 여대생들도 때때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겪거나 또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혼자 힘으로는 너무 벅찬 일들을 만난다. 그들에게는 엘리사벳이 필요하다. 엘리사벳처럼 지혜롭고, 따뜻하며, 공감해주며, 같은 고민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엘리사벳. 성경속의 엘리사벳이 그랬듯이 상황을 뛰어넘어 참 평안을 소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내면의 고요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 주는 언어습관을 우리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여대생들이 더 많이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인생의 힘들고 지친 여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두 가지 부분은 언어를 절제하는 부분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이 두 부분 일 것이다. 조이스 마이어(Joyce Meyer)의 책, "Me and My Big Mouth!"(1997)에서는 여성의 언어사용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부주의한 말들은 대부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경우에 불쑥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이스 마이어의 또 다른 책이며, 미국에서만 3백만 부 이상 팔린 초 베스트 셀러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란도 역간)는 염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독교 여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책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염려라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반응하는 법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평안,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인지,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가득 채울 수 있는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나 여성들은 삶에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인 특정 영역들, 반응들, 습관들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성들은 때때로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찬 경우에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기 쉬운 존재이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며, 두려울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 이런 모습에서 변화되어,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으로 말을 거는 모습, 그런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모습이기도 하다. 많은 여대생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는 진정한 평안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염려의 말은 자기 연민과 한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의 말은 때때로 가십과 원망의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평안이 없는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를 막아 놓는다. 이렇듯 말과 염려는 우리의 평안의 평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많은 경우 침묵하며, 두려움으로 쪼개진 마음을 주님께 잠잠히 내려 놓을 때에야 하나님의 그 고요하심이 들어오실 수 있으며,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하는 아름다움: 한나 (사무엘상 1:1-20)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한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한나가 살던 시대에 불임이란 견디기 힘든 고통이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한나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기도를 드린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온전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다. 또한 그녀의 기도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인간적인 연약함, 갈등과 고민, 외로움이 배어 있다. 그녀가 사무엘을 어떻게 기도로 양육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내용은 성경속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평생 기도의 여인으로 살았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많은 여대생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조지 물리의 책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놀라운 기도” 등등의 책들을 권해준다. 하지만, 웬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진다라고 가르쳐주는 책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없이 만들기 쉽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지는 것을 더 보고 싶어진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경속의 믿음의 여성들의 기도는 여대생들이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격려를 해준다.

현재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토미 오마산(Stormie Omartian)의 기도에 관한 책들은 기도를 하고 싶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대표작으로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생명의 말씀사 역간),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 (나침반사 역간), ‘스토미’(미션월드라이브러리 역간) 등이 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의 목차를 보면, 기도를 주제별로 안내하고 있다. ‘아내 된 나의 모습을 위해’ 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위해, 금전, 성, 애정, 시험, 마음, 두려움, 목적, 선택, 건강, 안전, 시련, 성실, 명성, 우선 순위, 부권, 과거, 태도, 결혼 생활, 감정, 말을, 회개, 구원, 순종, 자아상, 믿음, 미래를 위해 등이다. 얼핏 보면 마치 기도를 위한 매뉴얼 같은 인상을 받는다. 심지어 그녀의 책들을 선전하는 문구 중에 이런 글도 있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차분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기도주제를 파악하여 때에 맞추어 사용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남편이 축복받을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큰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솔직히 고백컨대 여성들의 신앙을 가볍게 본 듯한 인상을 받는다. 때를 맞추어 기도를 한다고 하여 평안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남편을 향한 축복과 큰 응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길고 긴 기도의 목차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삶 전체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격려라고 본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나 훈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

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 속 인물과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기도문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열렬한 사랑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속의 여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선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그 분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기로 매일 선택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기도 목록이 그토록 긴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위한 기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기도가 성경속의 여성들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기도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를 조망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과의 기도는 순간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힘요 생명의 줄인 것이다.

### (3) 하나님의 지혜를 실행하는 아름다운 여성: 아비가일 (사무엘상 25: 1-44)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부유한 나발을 보호해 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발의 행위는 매사가 거칠고 악했다(삼상 25:3) 또한 오만하고 이기주의자였다. 다윗이 자기의 전사들을 위한 식량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정면으로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하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미련한 나발을 공격하려던 어리석음을 막았다. 아비가일의 말을 유진 피터슨의 해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아비가일은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깨끗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립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놀라게도-믿을 수 없게도!-다윗은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인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기도와 시를 통해 다윗 속에 다시 하나님을 불러 일으켜 준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다. 아비가일은 주변인이다. 남자들이 주름잡는 세상에서 그녀는 여자다. 아비가일은 주변인이다. 칼부림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주변인이다. 물질과 실리 중심의 세상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었다(유진피터슨, 1999: 105).

아비가일은 마음과 외모 모두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의 ‘지혜’(삼상 25:33)와 조화를 이루었다. 유진 피터슨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을 놀라게 하여 갑작스럽게 빠져 들어갔던 추함에서 다윗을 구해 내었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된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접촉하게 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달았다.(p.107)”고 했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성은 주변의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아름답지 못한 선택을 할 때, 지혜의 실행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아비가일의 최대의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부모님, 배우자, 자녀, 동료,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그 누구든), 그들 속의 최선의 것, 즉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다.

(4)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아름다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리아

앤 머로우 린드버그는 그녀가 어느 해변에서 보낸 휴가를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는 바로 이 고민에 대해 이렇게 저술하였다.

“성인(聖人) 들 중에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드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여태 생각해 온 것처럼 순결이나 자녀 문제와는 본래 아무 상관도 없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것은 주로 마음이 나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사, 무수한 연출에 얽힌 인간관계--보통 여자의 정상 직 무는 창조적인 삶, 목상하는 삶, 성스러운 삶에 역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여자와 직업,’ ‘여자와 가정,’ ‘여자와 독립’ 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을 나뉘게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다(앤머레이,1955, p.29).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만큼 기독교 여성작가들의 책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는 부엌에서 분주하기 쉬운 아니 분주할 수 밖에 없는 마르다의 후배들이다.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의 분량과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고 믿는 자아의 역량 사이에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마르다는 자신의 분산되는 경향성과 긴장감으로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도 흠치려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으셨을 때, 마르다의 세심한 사랑과 섬김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초조해하고 짜증내며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있었던 것을 나무라심을 우리는 잘 안다.

한편, 또 다른 부엌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형제는 온전히 기도와 명상으로만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요리하고 청소하는 일에 배치되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보다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중심을 두고, 모든 일에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로, 은혜로 일하며 자신이 설거지를 하면서 일하는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목상을 하며 천국을 마음에 둔 상태, 그는 어떻게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자신 안에 통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에게만 집중하려는 마음’ 그 때문이 아니였을까.

하나님께서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마르바 던(Marva J. Dawn)의 안식이라는 책은 어떻게 번잡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를 해준다. 그녀의 책을 읽다보면 황혼이 막 지기 전 고요한 숲속의 오솔길을 말없이 따라가는 기분이 든다. 안식이라는 책에서 마르바 던은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 뿐 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

신의 삶속에서 체득한 안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가득 차, 탈진해버린 우리들에게 안식에 대해 먼저 묵상해야 함을 설득한다. 또한 안식이 주는 의미를 여성의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차분하고 선명한 진술로 안식의 뜻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 자신이 가꾸며 얻은 체험적 영감이 녹아 있는 책이다.

마르바 던은 안식을 설명하면서, 그침(ceasing), 쉼(resting), 받아들임(embracing), 향연(feasting)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녀의 책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식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택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함도 가르쳐 주고 있다.

결단은 실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부지중에 쉽게 부서져 버리는 작아 보이지만 낭비되는 시간들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지나친 텔레비전시청, 긴 수다의 전화내용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들처럼 대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낭비의 시간을 없애고, 자신의 모습을 고요한 물에 비춰보듯이 안식함으로 얻어지는, 영혼 깊은 곳의 고요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마음이 바로 마르바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 맺는 말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화장, 성형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독교인 여대생의 말

필자가 참여한 여성들만이 모인 한 성경공부에서, 90세 연령의 환하고, 고운 외모와 온화함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끄는 한 여성분이 계셨다. 그 분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셨으며, 여전히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계셨다. 하지만 그 분의 평온한 품성이 그 분의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맑은 고통의 모습과 생수같이 깨끗한 음성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C. 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오히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p. 163)” 라는 말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분에게 그토록 끌렸던 이유가 그녀가 그녀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 시간들 만큼의 깊이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엘리자베스 조오지는 그녀의 책에서 묻는다. “도대체 믿음의 여성 선배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라고, 고등학교 소녀들에서부터 젊은 여성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적 조언과 가르침과 도움을 원하며 필요로 하고 있다. 성경안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기독교 여성작가들의 책들에서 배운 점은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이란 상처받기 쉬운, 깨지기 쉬

운 연약한 그릇 같은 우리를 말함이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순간 혼란스러움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속마음까지도 주저 없이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의 죽음으로, 깨어진 꿈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감정적인 상처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버림당함으로, 학대로, 지독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등등 으로 다가와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게 된다. 우리와 같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은 보여주었다. 성경적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고통 뒤에 숨겨진 힘에 대해 그들은 고통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있다고 알려준다. 고통은 우리가 내적으로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준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려면, 역설적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독교인 여대생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 골짜기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 우리의 내적 인격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축복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성경속의 여인들은 힘든 삶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발 한발 내딛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세상문화가 가르쳐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구별되어 있었다.

잉그릿 트로비쉬는 결혼과 가정 사역 분야의 30년이 넘는 스테디 셀러인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의 작가 월터 트로비쉬의 아내이다. 그녀는 결혼을 한 후 서아프리카 카메룬 북부 지역에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남편과 함께 가정생활선교회(Family Life Mission)를 설립하여 세계 각처의 그리스도인 가정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잉그릿 트로비쉬가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낸 지 12년 후 집안에서 우연히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그녀와 결혼하기 전, 하이델부르크를 떠나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썼던 일기가 있었다. 그녀는 미국학생들의 생활이 당시 유학생이었던 남편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 졌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읽다가, 남편의 1949년 1월 23일자의 일기를 읽는다. 그 날은 잉그릿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임명된 날이었다.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잉그릿이 선교사로 임명받는 예배에 지금의 남편이 된 월터 트로비쉬를 초대했던 것이다. 그 날의 일기에 (아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던) 월터는 이렇게 썼다.

“방청소를 끝냄. 제 1루터교회에서 잉그릿 양을 임명하는 예배에 참석함. 그녀는 스물두 살. 분명하고 헌신되어 있으며 어떤 싸움이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음. 하지만 구석구석이 천생 여자임...”(잉그릿 트로비쉬, 2012: 212)

남편의 사후에 남편이 자신에 대해 쓴 일기내용을 읽으면서, 잉그릿 트로비쉬는 그것이 그녀가 지난 일평생 노력했던 바이기도 했다고 술회한다. “구석구석이 천생 여자인 당당한 여성” 이 뜻은 필자에게는 이렇게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을 여성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우신 이유, 우리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여성성, 그 눈부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이나 외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성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너무나도 “개별적인 아름다움 즉 개인적으로 지니는 매력”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여성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 치

를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는 여성.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이러한 여성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신감이 다시 여성들의 외면도 세상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한 기독교 대학의 여대생들에 한정하였으므로, 한국의 전체 기독교인 여대생의 견해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설문지 내용도 탐색연구의 수준에서 심도 있는 질문은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설문지의 문항도 심화하여 실행된다면 더욱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후 심층인터뷰를 하지 못했으나, 후속연구에서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심층인터뷰로 연구문제를 조사한다면 본 연구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용택 (2013). 『참교육이야기』. 서울: 생각비행
- 김지양 · 임은혁 · 전호경 (2013).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7(2), pp.164-178
- 마르바 턴, 전의우 옮김(2001). 『안식』. 서울: IVP.
- 베스 모어, 박혜경 옮김(2002) 『시인과 전사』. 서울: 두란노.
- 서정범 (2001). 『한국문학과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문학사상사.
- 엔드먼트 버크, 김동훈 옮김. (2006).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경기: 도서출판 마티.
- 움베르토 에코, 이현정 옮김. (2005). 『미의역사』. 서울: 주식회사 열린책들.
- 유진 티퍼슨, 이종태 옮김. (1999). 『다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서울: IVP.
-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201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0), pp.5-26.
- 잉그릿 트로비쉬, 김성년 옮김. (2012). 『아름다운 자신감』. 서울: IVP.
- 조이스마이어, 김주성 옮김. (201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서울: 두란노.
- 케를 메이홀, 네비게이트 옮김. (1993).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
- 헨리나우웬, 윤종석 옮김. (2002). 『예수, 우리의 복음』. 서울: 복 있는 사람.
- 파비엔 브뤼제르, 정고미라 옮김. (2009).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서울: 웅진주니어.
- 피에로 페루치, 윤소영 옮김. (2009).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서울: 웅진싱크빅.
- Anne Morrow Lindbergh, Gift from the Sea, New York: Pantheon Books, Inc., 1955, p.29. 바다의 선물, 범우사 역간
- C. S. 루이스, 이종태 옮김. (2002). 『고통의 문제』. 서울: 홍성사.
- Joyce Meyer, Me and My Big Mouth. (Oklahoma Tulsa: Harrison House, 1997)